

노르웨이 오슬로

글·사진 : 허용선(건강 칼럼니스트)

2005년 유엔이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세계의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노르웨이가 선정되었다. 케말 데르비스 신임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이 최근 발표한 것으로 노르웨이는 2001년 캐나다를 누르고 1위에 오른 이후 연속 5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무엇이 노르웨이를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었을까?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본다.

유엔개발계획에선 각 나라의 국민소득·교육수준·평균수명·문맹률 등 생활과 직결된 사회경제 지표들을 종합하여 통계를 낸다. 노르웨이가 해마다 높은 성적을 받는 데에는 정부의 뛰어난 관리 능력과 오랜 기간 노르웨이 국민이 이룩해온 결실이다. 노르웨이는 현재 세계 2위의 국민소득(1인당 GNI=5만2,000달러)과 실업률 세계 최저(3.7%)를 기록한다. 노르웨이는 국민 총소득의 1%를 해외 원조에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심이 좋은 나라'이기도 하다. 유엔개발계획의 조사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은 나라는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이다. 오랜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시에라리온은 세계 최빈국이다.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로 전형적인 항구도시다. 스카게라크 해협으로부터 내륙으로 쭉 들어간 오슬로 협만에 자리하며, 오슬로라는 이름은 고대 북유럽어로 '신의 숲'이란 뜻을 갖고 있다. 지난 가을 오슬로를 방문했을 때 견고한 성채라고 느꼈던 아케르스 후스는 한 때 스칸디나비아 최대의 성으로 오슬로 해안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데 큰 몫을 한 곳이다. 17세기에는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가 전쟁으로 파손된 이 성을 르네상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노르웨이의 국민들



스양식의 성으로 개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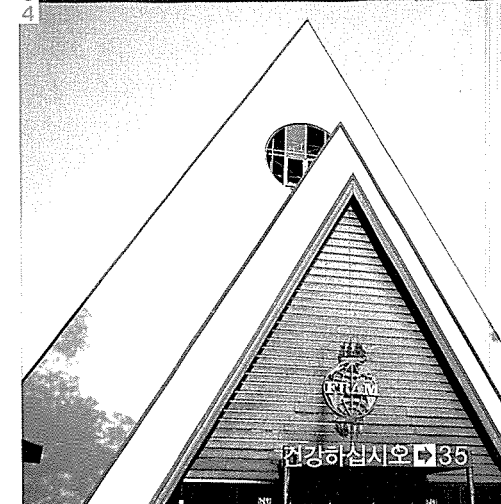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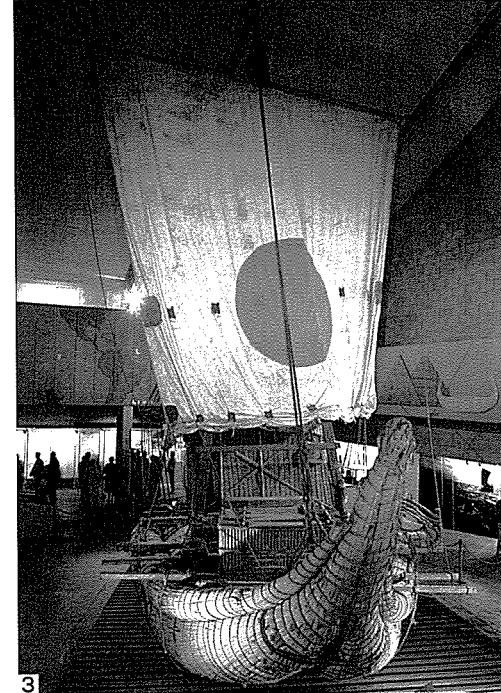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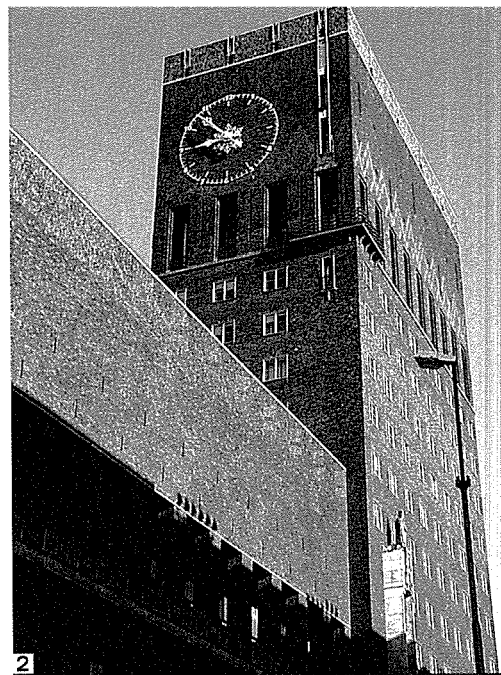
오슬로 출신으로 세계 미술사에 확고한 위치를 획득한 화가는 에드바르 뭉크이다. 뭉크는 그림의 주제나 화법에서 상당히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과 죽음, 삶과 불안, 질투와 절망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감정이 그의 예술의 중요 주제였다. 이것은 근대 문화가 싹트면서 19세기말에 겪어야 했던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표현하는 길이기도 했다. 오슬로 미술관에는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ASA 4000 정도의 고감도 필름으로 촬영하니 그런대로 사진은 잘 나왔다. 미술관에서는 스트로브나 삼각대 사용하지 않는 사진촬영은 허락했다.

프로그네르 공원의 기기묘묘한 조각상 역시 불만하다. 특히 모놀리텐으로 불리는 인간 기둥은 17m 높이에 121명의 남녀노소가 뒤엉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살아가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난다. 이 작품은 세 명의 석공이 14년을 걸려 조각했으며, 기둥 주위에는 36개의 석상들이 각기 기묘한 모습을 한 채 둘러앉아 있다. 프로그네르 공원에는 비젤란의 작품 192점에 약 650명의 인물이 조각되어 있다. 구스타프 비젤란이 반평생을 바쳐 이룩한 작품 전시장이다. 그는 인도 철학, 단테의 신곡, 성서를 가까이 했으며 옛 친구 뭉크 등 세기말의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생태를 사색하며 인생의 신비를 밝혀내려 한 조각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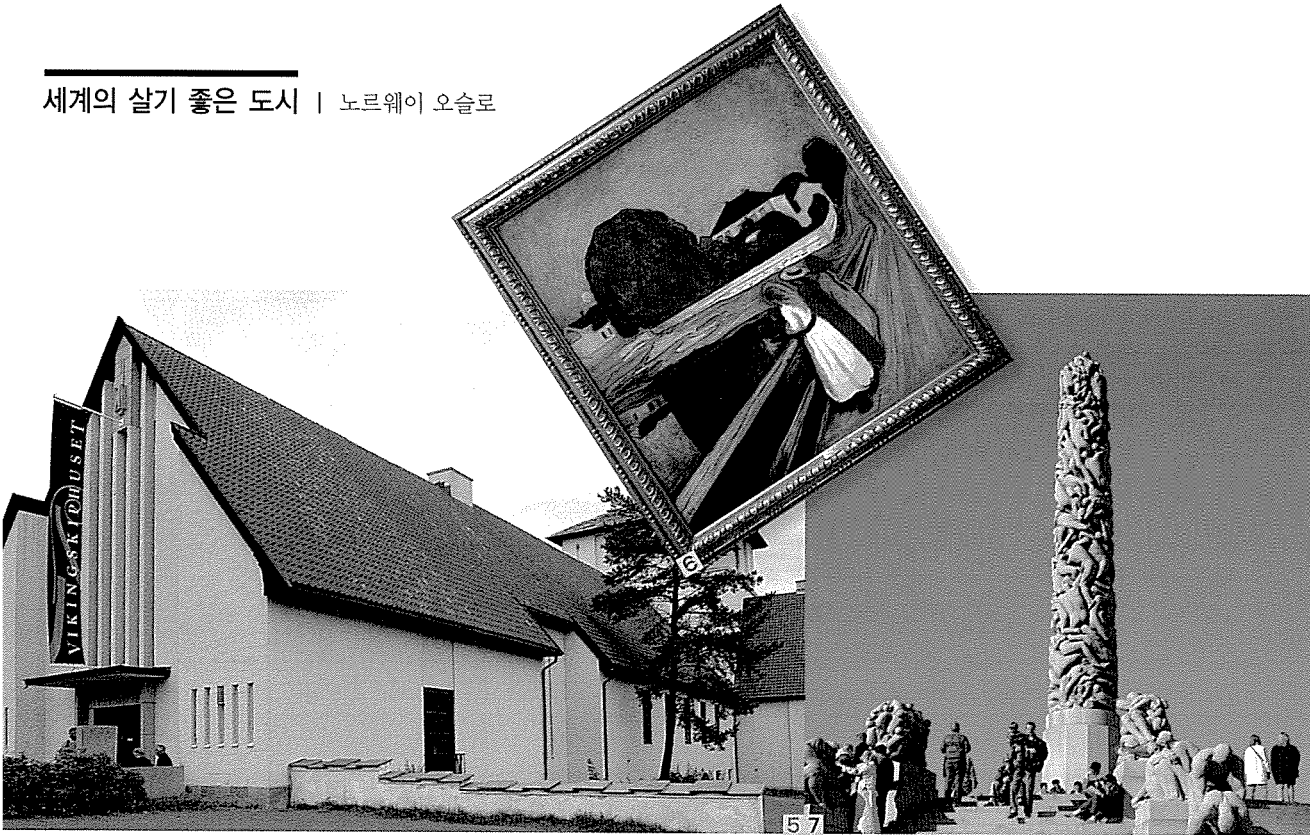
오슬로는 북유럽의 문화 도시답게 크고 작은 박물관이 많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남태평양을 횡단했던 콘티키 호를 전시한 콘티키 호 박물관, 노르웨이 각지에서 모아온 전통 가옥과 입센의 집으로 유명한 민속 박물관, 아문센과 난센이 탔던 프람 호를 전시한 프람 호 박물관 그리고 바이킹선 박물관이 있다.

바이킹선 박물관에는 3척의 바이킹선과 그 배에서 출토된 각종 부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3척의 배는 모두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배이다. 오슬로 험만에서 1904년에 발견된 오세베르그 호에는 9세기말에 죽은 왕비 오사와 순장한 노예의 시체가 함께 있었고, 소·개·말과 일상용품, 썰매 등이 있었다. 이것들이 고스란히 박물관에 전시된 것이다.

바다를 활동 무대로 삼던 바이킹에게 배는 국가이며 가정이자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었다. 바이킹은 배를 집으로 삼아 평생을 살다시피 했기 때문



[2]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상징적 건축물인 시청사. 우아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3] 콘티키호 박물관에 전시된 콘티키 2세호 [4] 예술의 도시답게 오슬로에는 박물관이 많다. 사진은 프람 호 박물관 모습.



5 3척의 바이킹 선이 전시되어 있는 바이킹선 박물관. 바이킹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다. 6 오슬로 국립 미술관에 전시된 몽크의 작품. 7 프로그네르 공원의 모솔리텐 조각상. 121명의 사람들이 서로서로 올라가려는 모습이다.

에 부족을 통솔하던 추장이 죽으면 그 유해를 배에 실어 두었다가 해안의 모래밭에 깊이 묻었다. 혹은 유해를 실은 배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배에 장작불을 붙인 채 바람 부는 저녁에 바다로 흘려보내기도 했다. 바이킹은 유럽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오로지 약탈이나 파괴만을 일삼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민족 이동, 식민지 설치, 도시와 항만 건설, 상업 및 무역의 확대 등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바다 저쪽에 있는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심, 불굴의 투지와 군센 저항력, 자유의 회구 같은 바이킹족의 정신력과 우수한 조선 기술 및 항해술로 세계 항해사에서 이들이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바이킹족의 후손인 북유럽 사람 중에는 유명한 모험가와 탐험가들이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해양국인 노르웨이의 난센과 아문센이 대표적인 탐험가로 알려져 있다.

난센은 ‘프람호’를 타고 북극을 탐험하였다. 프람 호는 배의 중간 부분을 불룩하게 만들어 바이킹의 조선 기술의 전통을 살려 제작한 배이다. 또 얼음의 압력을 받더라도 사선체가 저질로 떠올라서 갈라지거나 부서지지 않게 만들어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슬로 최대의 변화기는 오슬로 항구의 동쪽 중앙역에서 서쪽의 왕궁을 잇는 1.3km의 카를 요한스 거리이다. 이 거리의 한 쪽은 보행자만의 전용 길로 상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여름이 되면 공원은 일광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이 거리의 서쪽 끝 광대한 공원 안에는 1848년에 건립된 왕궁이 있고, 왕궁 앞에는 노르웨이의 군주이며 스웨덴의 왕이기도 했던 카를 요한의 청동 기마상이 서 있다. 부근에는 고전극부터 현대극에 이르는 연극 공연이 활발한 국립극장, 복음주의 루터 파의 총본산인 오슬로 대성당과, 그리고 1811년에 창립된 오슬로 대학 등이 있다.

예술과 바이킹의 탐험정신이 융화된 오슬로를 떠나면서 언젠가 다시 올 것을 기약해 본다. ㉞